

“성매매, 부처님은 사회적 문제로 보았다”

김한상 동국대 박사, <불교학연구>서 성매매 해결방안 밝혀

성매매 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른 논문이 눈길을 끈다. 김한상 박사(동국대 불교대학)는 최근 <불교학연구> 42호에 실린 ‘테라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본 매춘’ 논문을 통해 부처님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밝혔다.

먼저 김 박사는 부처님은 성매매 여성의 업을 소멸하고 근본적인 성욕을 절제하는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성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불교가 흥기하기 전 고대 인도에도 존재했다”며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사회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았고 부처님은 이에 대한 철학적 해결 방안을 아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팔리경전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임시 아내로 표현했다.

김 박사는 “팔리 경전에서 매춘부는 결혼관계에 얽매지 않는 신분이기에 이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불사음계를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 ‘임시 아내’에 속해 만약 다른 남자와 계약이 돼 있다면 불사음계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테라와다 불교의 관점에서 성매매 자체는 선도 불선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생에 지은 불선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 그런 존재

로 다시 태어났음을 인식하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성매매는 부도덕한 범죄로 치부됨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교에서 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사여성을 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육계에서 다수사람들

팔리경전의 성매매 인식 다뤄 종사여성 직업교육·복지 주장 부정명상 통한 성욕 절제 제시

의 감각적 욕망에 의한 결과이기에 사회의 성매매는 모두의 업으로도 확장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 “실상을 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빈곤문제로 성매매에 빠져드는 여성이 많다. 이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다른 직업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대사회에서 성문화 퇴보에 따른 불교적 사상적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명동 거리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의 성매매 근절 캠페인 모습. 김박사는 불교계가 성매매 인식 개선과 성욕절제를 위한 수행 보급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성욕에 대한 자기절제 방법을 사회에 전하고, 남성 위주, 물질 만능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세속의 대중들의 욕망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사회에서 성매매를 없애 버리면 통제할 수 없는 성욕이 분출되고 다른 방면의 성문화나 도덕의 퇴보를 초래한다. 고대 인도에서 성매매를 그릇된 생계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성욕을 절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수나디파타)에서는 역으로 성을 구매하는 남성에게 이는 파멸의 문이라고 표현하며 감각적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말한다. 즉, 성욕을

수행으로 승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예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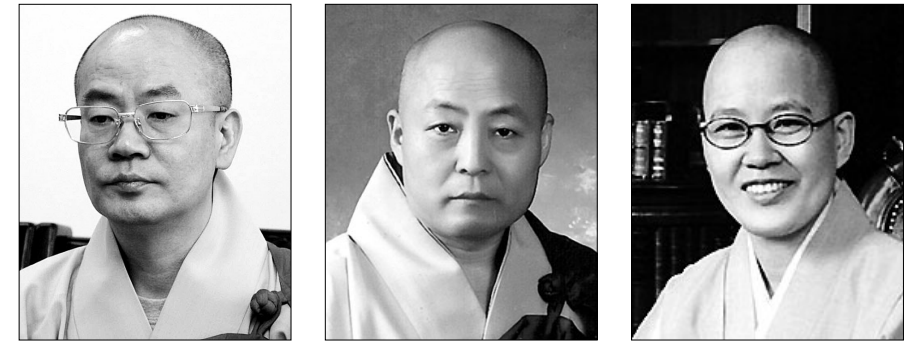
김 박사는 끝으로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는 부정명상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성욕에 대해 마음을 유지하는 정신요법을 개발할 수 있다”며 향후과제를 밝혔다.

한편, 전자저널 형태로 발간된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42집에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원효의 제7말나식편’,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천태사상과 원효사상의 공통요소’ △이중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 후기 화엄학 유행과 배경’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 편집은 호탄에서 이뤄졌는가’ 등이 함께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단나학술상에 법상·자명·정운 스님

중앙승가대 연구업적 기여자에 수여... 4월 29일 시상식



법상 스님

자명 스님

정운 스님

중앙승가대 부설 연구직원 및 연구논문, 저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단나학술상에 법상, 자명, 정운 스님이 선정됐다.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4월 13일 동국대 강사 자명 스님과 조계종 교육이사리 정운 스님이 우수저서 부문에,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논문에는 법상 스님의 <정토학연구> 제21호에 게재된 ‘오정심판과 천태의 화법사교’ 논문이, 우수저서 부문에는 자명 스님의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민족사)와 정운 스님의 <대승 경전의 선사상>(불교시대사)이 선정됐다.

우수 저서와 학술논문 각 분야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법상 스님은 1984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 후 동국대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교육원 교육이사리 소임 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우수저서 필자인 자명 스님은 1979년 해

인사로 출가해 백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PC동호회인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에서 지도법사를 맡아 인터넷 포교에 앞장섰으며, 서울 마하보리사를 창건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포항공대, 경희한의대 등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 지도법사로 대학생 포교현장에서 활동했다. 2011년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운 스님은 1989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 후 동국대 선학부에 입학, 불교학 석사 지도법사를 지냈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과 불교 인터넷방송 그리고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경전강좌를 강의했다. 2009년 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정진술집(한권으로 읽는 경전)’, ‘명상, 마음치유의 길’ 등 저서를 펴냈다. 현재 중앙승가대 대학원 강사, 조계종 교육이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4월 29일 오후 4시 중앙승가대 자비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031) 980-7709 노덕현 기자

염불선 사상과 흐름 한번에 살핀다

청화사상연구회, 5월 1일 ‘염불선 발전과정’ 세미나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과정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5월 1일 오후 1시 서울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고찰과 그 발전과정’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염불선과 선정계유’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정중무상의 인성염불과 청화선사의 염불선’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원효의 염불관과 청화의 염불선’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먼저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조준호 연구교수는 초기불교에서 염불의 선정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염불선에 대한 위치를 조명하고, 현대 불교의 선정에서 염불의 위치를 재조명한다. 조 교수는 “부처님 당시와 초기경전에는 ‘염불이 곧 선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지만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며 염불선정의 가능성과 여지가 봉쇄됐다”며 “불교 본래의 염불선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현대 불교선상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염불선은 단순히 칭명에 끝나는 것이 아닌 선정에 이르는 수행법으로의 위상을 지닌다. 굴곡된 염불선정을 복원시킨다면 대중불교와 산중불교의 교차점에 서있는 한국불교계에 또 다른 발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염불선은 불교의 여러 수행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동시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수행법”이라며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살피므로써 청화대선사의 염불선사상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이태승 원장’ 체제로

5월 2일 취임식...재가불자 중심 신불교운동 전개

2015년 41주년을 맞아 신불교운동을 선포한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김중화)이 새 수장을 선출하고 조직쇄신이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은 4월 5일 개원41주년 이사회를 열고 제6대 원장에 이태승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를 제6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태승 선임원장(사진)은 “연구원의 설립이념인 보살사상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임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에 이어 선출된 이태승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인도 후기대승불교철학을 전공으로 하여 불교학박사를 취득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반야학술상을 수상한 <산타라크쉬타의 중관철학>을 비롯해 <을유불교사상>, <인도철학사상>, <실담법자입문(공저)>, <지성불교의 철학> 등이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이번 이 원장 취임을 기해 조직쇄신이 나설 계획이다. 이미 ‘신



불교운동’ 전개를 위해 그동안 전국구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불교연구원을 열린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불교연구원, 열린유마선원, 전국구도회 등을 통해 사회참여에도 활발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불교연구> 학회지 발간을 이어가는 한편 실체에 필요한 2년 기초과정과 1년 전문과정의 강좌 등도 진행된다.

이태승 선임원장의 취임식은 5월 2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주요 불교인사와 전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그리고 전국구도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불연 이기영 박사(前 동국대 교수)가 1974년 설립한 재가불교 중심의 불교학술 및 신행단체다.

노덕현 기자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행복가정 프로젝트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불교계가 상호 이해와 배려 등을 통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명상상담평생교육원(원장 인경)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륜사(주지 진경)는 4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는 총 8개 과정으로 △만사행통, 엄마의 소통리더십(김상임 불루명경영연구소) △나를 찾는 행복, 에너그램(김동성 마음땀발 명상상담센터) △심리도식치료, 나의 내면이 만나기(김동한 명상상담평생교육원) △내 삶을 힐링하라(인경, 진경 스님) △카톡 말고 소통, 스마트폰이 UCC 소통하기(박명성 청운대) △내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상담하기(김문자) △행복한 가족세우기(인경 스님) △가족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인경 스님) 등으로 구성된다. 가족 내 대화를 통한 소통을 늘려 최근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족 내 소외 문제, 세대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는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강의 후 법륜사에서 재강의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명상상담평생교육원, 5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법륜사에서 강의가 이어진다.

인경 스님은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편안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간 소통단절, 소외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가족 구성원간 역할을 느끼고,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진경 스님은 “취임 후 대중 문화포교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인경 스님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며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만큼 새로운 포교도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02)7333-5322 노덕현 기자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유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 야 야 야,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목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음, 낮은 베개는 버려라
-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파고,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할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걱정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 침대에 쓰러지면 위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베개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임빌리고 자면 골뺩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완성! 심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은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僧家秘傳風水學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전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 모 집 : 수시 모집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재 : 유리자 (유리자동서), 옥룡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